

일본해 호칭 문제(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지도 조사) 개요

2004년 3월 11일

1. 일본 외무성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월까지, 프랑스 국립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 중, 16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주로 유럽에서 발행된 지도에서 일본 해역에 관한 명칭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는 “[일본해]라는 명칭이, 19세기 초엽부터 유럽에서 발행된 지도에 정착되어 왔다”라는 일본국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2.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일본해]의 명칭이 지배적으로 된 것은 20세기 전반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주의의 결과이다”(주 1),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서양인은 이 해역에 대해서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한국에 관해 언급하는 명칭을 사용한 지도가 가장 많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주 2), 한국 측은 이에 관한 근거로서,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서 한국 측이 독자적으로 실시한 고지도 조사를 들고 있다. 한국 측 조사에 의하면, 16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발행된 지도 515점을 조사한 결과, 일본해 해역에 바다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지도는 115점이었으며, 그 중 62%에 해당하는 71점이 [조선해(Mer de Coree)] 또는 [동해(Mer Orientale)]로 표기하고 있었고, [일본해(Mer du Japon)]라고 표기한 고지도는 19%에 해당하는 22점이었다고 되어 있다(주 3).

주 1: Lee Ki-suk, Kim Shin, Soh Jung-chul, “East Sea in World Maps”, The Society for East Sea, (Seoul: 2002) pp95-112

주 2: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he Korean Overseas Information Service of the Government Information Agency, “EAST SEA The Name EAST SEA Used for Two Millennia”, (Republic of Korea: April 2003) pp.4-11

주 3: 조선일보 2003년 3월 11일, 중앙일보 2003년 3월 11일

3. 일본 외무성이 실시한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지도에 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프랑스 국립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도 중 16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발행된 지도 1,495점을 조사한 결과, 일본해 해역에 바다 명칭이 기재된 지도는 407점이었다. 그 중에서 [일본해]라고 표기된 것은 249점이었으며, [조선해]라고 표기된 것은 60점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동해]라고 기재된 지도는 발견되지 않았다(주 1). (리스트 별첨(PDF))
 - (2) 19세기 전반에 발행된 지도에서는 전체의 90.0%에 해당하는 99점이, 19세기 후반에 발행된 지도에서는 100%에 해당하는 105점에서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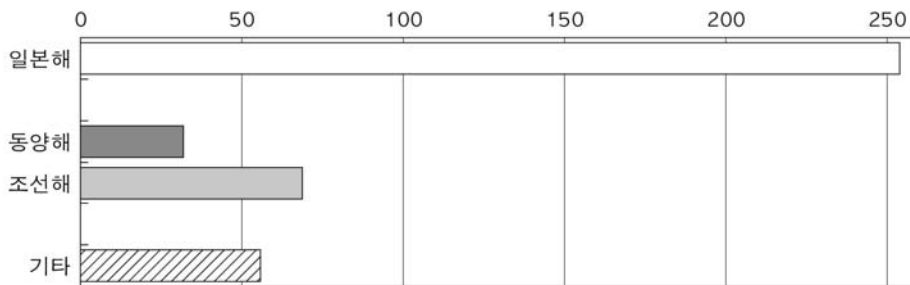
주 1: 한국 측은 “East Sea”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보면 “동쪽에 있는 바다”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riental”은 “Occidental”의 반의어로서, 단순한 방위인 “East”와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국 측 조사에서는 “Mer du Orientale”를 [동해]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번 외무성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동양해]로 분류하였다.

(표)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지도 조사 결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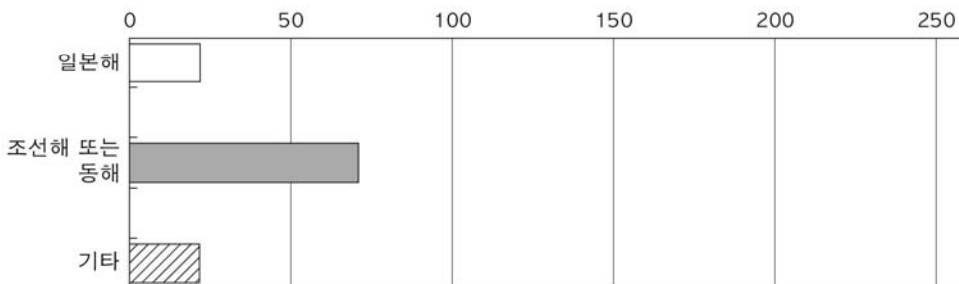
	1550-1600	1601-1650	1651-1700	1701-1750	1751-1800	1801-1850	1851-1900	불명	17C	18C	19C	합계	비율
일본해	0	2	12	9	10	99	105	10	0	5	2	254	62.0%
동양해	0	6	8	3	0	0	0	8	6	1	0	32	7.8%
조선해	2	0	1	12	36	6	0	7	3	1	0	68	16.6%
기타	5	19	6	3	2	5	0	4	11	1	0	56	13.7%
합계	7	27	27	27	48	110	105	29	20	8	2	410	

(그래프) 프랑스 0 국립 도서관 소장 지도에 관한 조사 결과(일본 측 조사와 한국 측 조사 비교)

(일본 측 조사)



(한국 측 조사)



주: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지도 가운데, 발행 시기를 전혀 특정할 수 없는 지도가 4 점 있었다.

이들은 편의상, 1650 년대로 되어 있는 지도는 17 세기 전반에, 1737-1772 년으로 되어 있는 지도와 18 세기 후반으로 되어 있는 지도는 18 세기 후반으로, 1880 년대로 되어 있는 지도를 19 세기 후반으로 간주하여 집계하였다.

덧붙여서 [일본해·동양해]로 표기된 지도 2 점은 일본해에 포함시키고, [동양해·조선해]로 표기된 지도 5 점은 조선해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일본해·조선해]로 표기된 지도 3 점에 대해서는 일본해와 조선해에 각각 3 점씩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결과, 표와 그래프에서는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수가 254 점(249+2+3)이며, 조선해로 표기된 지도수가 68 점(60+5+3)으로, 전체 지도수가 410 점(407+3)으로 되었다.

4. 이번 일본 측 조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 (1) 18 세기까지 유럽 지도에서는 일본해 해역에 관한 명칭으로 [일본해], [조선해], [동양해], [중국해]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다.
- (2) 19 세기 이후, 주로 유럽에서 발행된 지도에서는 “[일본해]라는 명칭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일본해]라는 명칭은, 일본이 쇄국 정책 하에 있어서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19 세기부터 유럽에 정착해 왔다”라는 일본 측의 주장이 재확인되었다.

- (3) 덧붙여,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지도에 대한 한국 측의 조사는 동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일부 지도에 국한된 것으로써 불충분한 조사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는 “[일본해]의 명칭이 지배적으로 된 것은 20 세기 전반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주의의 결과이다”, “17 세기부터 19 세기까지 서양인은 이 해역에 대해서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한국에 관해 언급한 명칭을 사용한 지도가 가장 많았다”라는 한국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